



한·EU FTA 제2차 협상 농업부문 협상결과

농림부

- 한·EU FTA 제2차 협상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의 EU 대표부에서 개최됐다.
 -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대방이 제시한 상품분야 양허안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, 향후 양허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 - 아울러 위생·검역(SPS), 원산지 등 농업관련 분야의 협정문 논의도 진행했다.
-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측은 농업의 민감성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EU측의 관심품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.
 - EU측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측 양허안의 개방수준이 낮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.
 -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취급을 다소 인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한 최소화하고, 양허초안에서 미정(undefined)으로 분류한 품목의 양허 유형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.
 - 또, 한·미 FTA 협상결과와 비교할 때 돼지고기, 포도주, 맥주, 위스키, 체리, 가공 토마토 등에 대한 양허안은 차이가 많다고 예시하면서 관심을 표명했다.
- 우리측은 양허안이 다소 보수적이나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EU측 양허안 중 일부 공산품에 비관세 장벽 해결 조건을 부가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 - 아울러 농산물의 경우 양측의 농업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, 결국 양측의 양허 내용이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
- 양측은 각자의 양허안에 대한 상대측 평가

를 감안해 제3차 협상 전 수정양허안을 마련키로 합의하고, 이번 협상에서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지는 않았다.

□ 위생·검역(SPS) 분야에서는 EU측이 마련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문안 작성배경과 목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.

• EU측은 동물복지는 자국이 체결하는 모든 FTA에 반영하는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하고, 한·EU FTA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.

- 다만 교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, 세미나·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.

• EU측은 지역화 인정 문제가 최대 관심사이며 국제기준에 따라 지역화 개념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- 다만, 구체적인 지역화 인정 절차는 FTA 협상 체결 이후 별도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기를 희망했다.

• 우리측은 동물복지 및 지역화 인정절차 마련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대응했다.

- 아울러 협정문 초안을 EU측이 마련했으므로 양측 입장을 반영한 수정 문안을 우리측이 작성하여 제3차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, EU측도 이에 동의했다.

□ 원산지 및 통관절차는 EU측이 제시한 협정문을 바탕으로 양측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.

•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.

- 육류, 화훼, 채소, 과일, 곡물 등 신선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경우에만 특혜 관세를 인정하는 완전생산 기준을 적용

□ 기타

• 지리적 표시(GI) : EU측이 마련하기로 한 초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가 없었다.

• 국가보조(state aid) : EU측은 EU 회원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조의 감축 또는 철폐 방식을 우리와의 FTA에도 반영하기를 희망했다.

- 다만, 이 규정은 서비스업의 운영 보조를 대상으로 하고, 농산물에 대한 보조는 WTO 협정에서 농업보조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에 따르면 대상에서 제외됐다.

□ 제3차 협상은 9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며, 협상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. 🇺🇸🇪🇺